로그인

중앙일보 중앙SUNDAY JTBC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JMnet 더보기

뉴스검색

문화

책 공연 미술 클래식 가요 방송 영화

잘츠부르크 음악제 "한국 청중이 중요한 후원자"

[중앙일보] 인력 2017.12.03 00:05

김호정 기지

14



유럽 여름 음악축제를 대표하는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마르쿠스 힌터호이저 예술감독(왼쪽)과 헬가 가블·슈타들러 위원장. [사진 WCN]

"잘츠부르크 음악제 티켓 중 매년 3000장을 한국 청중이 구매한다. 한국 청중이 음악제의 중요한 후원자가 되리라 믿는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위원장인 헬가 라블-슈타들러가 1일 서울 정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라블-슈타들러 위원장은 23년째 축제를 이끌고 있다. 세계 제1차대전 이후인 1920년 시작된 잘츠부르크 축제는 오페라, 오케스트라 공연, 기악 독주회, 연극으로 매해 여름 한 달 동안 200여회 공연을 여는 유럽의 대표적인 음악 축제다. 라블-슈타들러 위원장과 마르쿠스 힌터호이저 예술감독 등 주최 측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찾아 국내 청중에게 음악제를 알리고 있다.

매년 한국 청중 3000명 관람
"한국 후원그룹 올해부터 운영. 특별한 프로그램 제공"
잘츠부르크 음악제 위원장, 예술감독 내한해 음악제 알려

잘츠부르크 음악제의 전체 티켓은 약 23만장. 라블-슈타들러 위원장은 "음악제가 시작되면 현장의 티켓 창구에는 표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지지만, 국제 음악제라는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 등

AD "남성 말못할고민" 10분이면 해결가능!!
AD 잦은방귀,"뱃속찌꺼기" 해결하니 살이 쫙쫙

Innovation Lab



태양으로 굽는 쿠키 Posted by Hanwha

댓글 많은 기사

- 1 여의도 떠난 정의화 "김기춘이 '친박이냐 친이냐'
- 2 美 대북 강경파 그레이엄 "주한미군 가족 철수시킬
- 3 김흥국 퇴출 당시 2011년 작성된 국정원-MBC
- 4 "중국 지도부, 북한 핵보유국 지위 인정하는 쪽으로
- 5 김재연 전 통진당 의원, 정치권 컴백
- 6 [이하경 칼럼] 지금이 중국 총독의 시대인가
- 7 [전영기의 시시각각] 송영무 흔드는 청와대 사람들
- 8 "핵실험 풍계리 귀신병 시달려…성별 알 수 없는
- 9 檢, '문재인 비방' 신연희 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10 [사설] 동료 판사를 '벌거숭이 임금님'에 빗댄 어느

우리 아이 직업체험 하고 키자니아 선물 받자 GO!



인기 J플러스

더보기

국민 통합으로 통일

민병일 | 공학박사/삶으로 보는 역사

아이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방승호 | 모험상담가/교장

아이돌 '볼모 마케팅'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 아시아의 티켓 할당분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한국에서 음악제를 보러 오는 청중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한국 프렌즈'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러시아·스위스·독일 등의 후원 그룹에 이어 만들어졌다. 후원자들은 1250유로(약 161만원)의 연회비를 지불하고 공연 티켓 우선 예매권을 받는다. 또 리허설 참관, 연주자와의 만남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라블-슈타들러 위원장에 따르면 이렇게 모인 각국 프렌즈의 후원금이 매년 300만 유로(약 38억원)다. 축제의 총예산은 6100만 유로(약 788억원)고 그중 절반이 티켓 수익금으로 채워진다. 나머지는 정부 지원금 1600만 유로(약 206억원), 기업 후원금 900만 유로(약 116억원)로 충당한다. 라블-슈타들러 위원장은 "유럽의 주요 오페라 극장이 제작비의 20% 정도만 티켓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데 비해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관객의 참여가 높은 것"이라고 했다.



매년 여름 5주동안 음악제가 열리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야경. [사진 Tourismus Salzburg]

내년 음악제의 프로그램과 참여 예술가들의 명성도 묵직하다.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로 시작해 R. 슈트라우스 '살로메'까지 8편의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다. 지휘자 프란츠 뵐저 뫼스트, 켄트 나가노, 마리스 얀손스 등이 오페라의 음악을 맡았다. 힌터호이저 예술감독은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예술의 목적에 집중할 것"이라며 "오페라들을 통해 인간 사회의 권력, 집착 같은 것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되도록할 것이다"라고 소개했다.

한국 연주자들의 음악제 참여에 대해서도 긍정적 전망을 했다. 소프라노 여지원은 올여름 잘츠부르크의 오페라 '아이다' 공연 7번 중 2번 출연해 주역으로 노래했다. 힌터호이저 예술감독은 "까다로운 지휘자 무티가 '이탈리아 사람보다 더 이탈리아 가사를 잘 소화한다'고 했을 정도의 역량 있는 소프라노"라며 "내년엔 공연 계획이 없지만 음악제 100주년인 2020년쯤 다시 초청할 것"이라고 했다. 또 "쇼팽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초청할 계획이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열린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핫이슈

#리셋 코리아

#퓨처앤잡

"관행 깨려면 충격 필요" 토론 뒤 블라인드 채용 찬반 낮엔 요양병원 진료, 오후엔 스타트업 키워요

#김민석의 Mr.

#알쓸신세

북 ICBM 발사, 미국 대북봉쇄냐 군사옵션이냐 갈림길 고엽제보다 무서운 기생충, 참전용사 죽였나

프리미엄

고개숙인韓남성 "장어,아란문" 다 필요없다!
LPG차량 "5년 렌탈"후 공짜로 가져가세요!
"얼굴주름" 밤마다 "이것" 하니 팽팽해져..!
주식으로 月3,000만원 씩 벌려면 "규칙 따라라" 의사도 놀란, "필모개선"새까맣게 꽉 차.. "비엄" 콧물, 코막힘 근본원인 찾아...충격!!
"중년,男" 5명중 1명은 '이것' 먹어?!
"얼굴주름" 밤마다 "이것' 하니 팽팽해져..!

AD 인기 링크

- 한국남자 '이것'한알 자신감회복 제격
- LPG차량 "5년 렌탈 후", 공짜로 가져가세요!
- "빚"있어도 12月 누구나 1억원 지원!!
- "빚"있어도 12月 누구나 1억원 지원!
- 평택이 한국 최대 주택도시 될 것..이유는
- 잦은방귀,"뱃속찌꺼기" 해결하니 살이 쫙쫙
- 알파고 이젠"주식",두시간만에 32억 벌어!! "업계발칵"
- "두통,어지럼증" 잦은 원인 알고보니.."충격"

AD 스페셜 링크

- 카트"빚"갚지마? 새 정부 1억까지 100% 지원!!
- 집수리 할때 "이것"알면 반값에 가능?..충격!!
- 몸속"기름덩어리" 이렇게 빨리 빠져?! 충격!!

AD 프리미엄링크

"임플란트" 1개 10분, 8개 35분이면 끝나?
"서민대출" 1인당 3천만원! 안받으면 손해다??
비야X라 50배 효과?! 하룻밤 3번? 女흥콩보내..! 탤런트 현영, 결혼후 살짜.. 2달만에 -24kg 감량!
"정력" 좋아진 중년화, 대체 월먹나 봤더니? 충격! AD

AD 잦은 "어깨통증", 해결방법 간단하네!!!

알파고 이젠"주식",두시간만에 32억 벌어!! "업계발칵"

月120만원 벌던 미혼모, "17억모은 사연!" 서울역 노숙하던 70대男 "100억"모아..인생역전! 충격!!

군인 월급으로 40억 번, 20대 전역자?

최근 SNS를 통해 퍼진 이슈 중 군대제 후 모아놓은 70 만원으로 2년만에 40억이라는 큰수익을 얻은 청년이 화제다. 서울 모처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이재성(25

#잘츠부르크 #음악제 #잘츠부르크 음악제 #잘츠부르크 축제 #내년 음악제

포털 실시간 검색어 **1** 2











PHOTO & VIDEO 더보기

전체댓글 0 게시판 관리기준

[알림] 소셜 로그인을 활용해 손쉽게 의견을 작성해보세요.

소셜댓글이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의견 작성을 위해 원하시는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십시오 등록 0/500

SHOPPING & LIFE

KSREAN AIR SAMSUNG 🚻 하나투어리스트 Mercedes-Benz | 더클래스효성

중앙일보 고객센터 부정청탁제보센터 광고 안내 제휴문의 건학신청 회원약관 **개인정보 처리방침** 청소년 보호정책 고충처리 서비스전체보기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0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 이 01013 등록일자 : 2009.11.2 발행인 : 김교준 편집인 : 오병상 JoongAng Ilbo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콘텐트 문의] Copyright by JoongAng Ilbo Co., Ltd. All Rights Reserved